

에든버러 축제와 임시 극장

글_김준영 (런던통신원, 런티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lovestage.com)

C venue © C venue press



영국 북쪽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예술축제를 가진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공연예술가들에게 많이 알려진 프린지 축제는 1947년 제1회 에든버러 국제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예술가들이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모여 시작되었고 그런 축제가 이제 7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48년 극작가이자 에든버러 이브닝 뉴스(EEN) 기자였던 로버트 캠프(Robert Kemp)가 그해 8월 14일자 기사 'More that is Fresh in Drama'에 처음 사용한 '프린지'라는 용어는 이제 모든 축제의 대명사가 되었고 지금의 프린지는 처음보다 더 비공식적이고 인기 있는 축제로 변모되어왔다.

약 230만 장의 티켓을 판매했던 2015년에 이어 금년 프린지는 3천 2백여 개 단체가 에든버러 도시 곳곳에 만들어진 294개의 '임시 극장'에서 3주 동안 총 5만 266회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 해 프린지 기간에 올라오는 모든 공연을 다 본다고 가정하면 7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통계들로 미루어 볼 때 축제기간 에든버러를 찾는 공연예술가들 또는 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어디에서 공연을 펼칠 것인가?"하는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이라. 그래서 이번 세계 연극의 창에는 극장 아닌 공간들이 축제기간 극장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려보고자 한다.

프린지의 임시공간들은 이제 축제의 발전사와 함께 에든버러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나 관객, 그리고 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온 한국의 많은 공연 및 축제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극장 운영실태는 거의 노출되어있지 않아 제대로 된 이해도와 분석이 전무하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에 공연을 유치하는 임시 극장들의 경영관리 본부 대부분은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있다. 이들은 1년 내내 또는 영구적인 극장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가 아닌 기간(약 11개월) 동안 소수의 운영진들만 고용해 경영한다. 극장 매니저(venue manager)라고 불리는 이들은 종종 많은 다양한 업무의 형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멀티태스킹에 능숙하다. 경우에 따라 그들은 무대 기술자가 되기도 하며, 협상 전문가, 행정가, 인사관리자, 계약 담당자, 그리고 금융관리 또는 회계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도 한다. 만약 그들이 기업형 극장경영 그룹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한다면 매년 축제 기간에만 다시 돌아오는 전문 극장 경영팀이나 어시스턴트를 아래에 두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들이 1년 내내 진행하는 극장관리 준비 체제와 실제 운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매우 지루한 싸움이며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각의 단계에는 시간에 맞게 꼭 완수해야 할 업무가 있고 경우에 따라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며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도 하다.

A 단계: 10월~다음해 2월까지

- 출판물 『더 스페이스』(The Spaces: 에든버러 축제에 사용되는 모든 극장 공간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책)에 등재할 수 있도록 11월 전까지 극장 공간을 확보하는 일
- 핵심 직원의 고용(전년도 근무했던 직원이 돌아온다면 확답을 미리 받아두어야 하며, 신규 직원 일 경우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적합한 인물을 찾아내는 일)
- 비현실적인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협상에 적용하는 일

B 단계: 3~6월까지

- 극단과의 극장 임대계약 시작
- 극장에 사용되는 음향, 조명 장비의 확보(선점)
- 기업의 스폰서 계약
- 프린지 축제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공식 프로그램과는 독립적인 극장 자체 프로그램과 출판물 기획
- 채용된 직원들의 숙박시설 섭외 및 계약

C 단계: 축제 한 달 전 7월

- 파티타이머를 고용하고 시간에 맞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획
- 임시 공간에서 공연허가에 관련된 에든버러시 안전 감사 통과
- 극장을 개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안전사고와 건물의 손상(특히 오래된 교회공간) 모니터

D 단계: 8월 축제 시작 1주 전부터 공연장을 공개하고 축제가 시작되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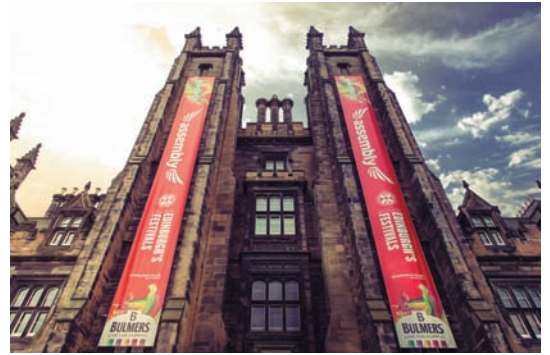
- 프리뷰 기간 동안의 직원 교육과 이어지는 공연 홍보
- 극장그룹별 독자적 출판물 관리
- 안전사고, 고객 불만 등 임시극장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문제점 모니터

E 단계: 9월 축제 끝, 포스트 프린지 기간

- 임시 극장 공간을 프린지 전 상태로 돌려놓기
- 극장, 극단, 배우 정산
- 음향(음원) 사용 및 각종 저작권협회(Performing Rights Society)에 지불해야 할 비용(전체 매표의 3%) 관련 문제 해결

비록 축제가 일어나는 단 3주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극장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연간 진행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준비 작업의 연속이었다. 이렇듯 거의 모든 공연장들은 건물 고유의 역할을 잠시 중단하고 축제기간엔 극장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또는 지역사회에 별다른 기능이 없는 일년 내내 버려진 공간들을 축제기간에 만 극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놀라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임시 극장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많은 경우, 에든버러시가 제공하는 불편한 교통, 숙박시설 등과 함께 임시 극장에 따라오는 주차 문제, 질 낮은 식음료 및 고객 응대)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관객 만족도에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기여하는데 이것은 바로 '프린지 효과(Fringe Fever Effect)' 로써 관객의 긍정적인 관극 경험을 총체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축제가 가진 독특한 분위기 조성이라 하겠다.

앞으로 축제 참가를 고민하는 우리 극단들이 이런 과정을 인지한다면 자신들의 공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을 선정할 때 극장 공간의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더 스페이스』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극장 그룹들이 이 책에 앞서 참가 단체에게 극장 임대료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내기도 하는데 비용 절감과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꼭 점검해야 할 일이라 하겠다. 📄



Assembly © Assembly press



The Pleasance © Pleasance press



The Pleasance © Pleasance press



C venue © C venue press